

【현장보고】

## 기념비적인 여행

아프리카의 북한 기념비들

최원준 (미술가, 영화감독)

1994년 김일성의 장례식 당시 평양시민들이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광적으로 슬퍼하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북한의 미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일성 동상이다. 북한의 미술은 북한 외부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로, 북한 내부에서는 주체 미술이라고 불리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주의를 넘어선 지나친 영웅주의와, 때로는 판타지 같은 이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미술사조에 배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 5월,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사(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가 세네갈에 건설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는 유럽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일반에 공개되었다. 나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49m라는 동상의 거대함에 놀랐고, 북한이 왜, 어떻게 세네갈에 동상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북한이 그동안 3만여 개의 김일성동상을 만들며 쌓아온 수준급의 동상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대형 브론즈동상을 세네갈에 건설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sup>1)</sup>

---

1) 지금까지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김일성 대형동상은 그 숫자가 총 70여개, 김일성 모습의 석고 흉상은 북한 전역에 약 3만여개가 세워진 것으로 알

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북한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약 18개국에 기념비와 동상, 건축물을 건설해 왔는데, 1970~80년대에는 마다가스카르, 토고, 에디오피아 등에 동상이나 기념비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었고, 2000년 이후에는 나미비아, 콩고, 보츠와나, 세네갈 등의 나라들에 건축물과 기념비 공사를 통해 1억6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글에서 나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을 위해 방문한 아프리카 9개 나라 12개 도시 중에 2013년 2월과 7월 그리고 2015년 10월 세 차례 방문한 나미비아, 짐바브웨, 세네갈을 중심으로 북한이 건설한 건축물과 기념비에 대한 리서치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미비아는 김일성의 아프리카 군사원조외교의 대표적 사례이자 1970년대 원조외교가 2000년대 만수대 해외개발사 비즈니스로 발전된 사례이다. 짐바브웨는 1980년대 북한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나 군사원조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에 경도되었던 무가베대통령과 김일성의 친분관계가 만수대 해외개발사의 건설수주로 이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네갈은 북한과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의 브론즈 조각 기술이 수출된 사례이자 만수대 창작사와 해외개발사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로 다루고자 한다.

나미비아는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남서아프리카로 불려왔다. 1915년 이후 74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식민통치를 받아 오다가 1990년 3월, 아프리카에서는 53번째로 독립국가가 되었다. 나미비아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독립전쟁을 치루어 독립했는데, 전쟁의 주체는 남서아프리카 인민조직(SWAPO: South-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이었다. 나미비아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친소

---

려지고 있다. 김일성 동상만 3만개가 넘는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많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석고상의 개수까지 합쳐서 계산된 것이라고 한다.

런권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북한은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영웅인 샘 누조마(Sam Nujoma)가 이끄는 SWAPO의 무장당파인 나미비아 인민해방군(PLAN: People's Liberation Army of Namibia)에 무기를 포함한 물질적인 원조를 무상으로 주었으며, 1965년부터 많은 SWAPO 당원들은 평양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미비아가 독립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샘 누조마는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만수대 해외개발사는 나미비아의 대형건설 공사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미비아를 방문한 첫 날 나는 나미비아 수도 빈트훅(Windhoek)의 시내에 세워진 독립기념관 건물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나미비아 폴리텍 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필립 류엘(Phillip Lühl)을 인터뷰 하였다.

필자: 처음 본 영웅릉의 기념비와 묘지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처럼 보였습니다. 영웅릉은 나미비아 문화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립: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들의 걸모습이나 외관들은 이 지역의 역사나 전통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독일 식민지시절에 강제로 도입되었던 독일식민건축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는지는 나미비아의 국립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과연 새로운 자율성과 그 질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세 건물과 그 안에 예술품들은 나미비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자: 당신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필립: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150년 동안 드라마틱한 식민주의를 겪었고, 그 결과 많은 건물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대발전이 새로운 형식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을 필요로 한 겁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급격한 도

시화 또한 식민지 시대 이전에 쓰이지 않았던 다른 건축방식과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립니다. 식민 시대 전에는 아프리카에 도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전통 아프리카 오두막은 요즘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프리카 건축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프리카 건축을 상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아프리카 건축은 전통적인 것부터 모던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건축학교들이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빈트훅에서는 독일 식민지 시대 당시 건설된 독일식 건물들과 남아프리카 식민시대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건축은 흔히 흙으로 만든 집이나 흙으로 지은 성벽을 떠올리게 한다. 나미비아 빈트훅 시내에는 고층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시내의 풍경이 상당히 단조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북한이 만든 독립기념관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이 건물을 멀리서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디자인한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건물은 마치 황금으로 뒤 덮인 건물처럼 강렬한 금색의 파사드를 가지고 있으며 검은 대리석으로 건물의 가장자리 수직선을 처리하여 더욱 수직적인 전면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수직적인 구도와 대칭성은 주변의 단조로운 건물들과 비교되며 더욱 압도적인 이미지로 마치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상징성을 보인다. 내가 처음 방문한 2013년 당시 이 건물은 소장품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건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내가 촬영을 위해 건물주변에 머무는 동안 몇 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건물을 보며 중국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나



〈그림 1〉 독립기념관, 나미비아 빈트훅, 2014년 3월 완공

미비아 언론에서 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전까지 상당수의 나미비아인들은 독립기념관 건물을 중국인들이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재방문한 독립기념관에는 소장품이 공개되어 있었는데 내전 당시의 전리품과 참전용사들의 유품들을 제외한 모든 인테리어 장식과 내부의 그림들은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예술가들이 평양에서 제작하여 나미비아로 운송한 것이었다. 또한 일부 대형 벽화는 현지에서 제작되기도 하였다.

독립기념관의 건물 입구에는 입장객 수를 관리하는 노트가 있었는데 무료입장에도 불구하고 평일 관람객 수는 20~30명 정도였다. 빈트훅의 인구(325,858명)를 대비했을 때도 관람객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독립기념관 빌딩은 시내의 중심에 자리잡은 나미비아를 대표하는 건물이자 일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은 듯 보였다.



〈그림 2〉 나미비아 독립기념관 건물 내부 벽화

수도 빈트훅에서 리호보드(Rehoboth)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2002년 8월 개관한 국립현충시설인 영웅릉이 위치해 있다. 샘 누조마 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후 만수대 해외개발사에 평양 대성산 혁명 열사릉과 비슷한 설계디자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웅릉은 혁명 열사릉의 레플리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평양의 대성산 혁명 열사릉처럼 산을 깎은 언덕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묘지에는 5,000명이 앉아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이 있으며 산의 정상부분에는 15m 높이의 대리석으로 만든 오벨리스크와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를 기리는 7m높이의 무명용사 동상이 세워져 있다. 또한 174명의 독립영웅들이 안치되어 있으며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묘지들도 이미 자리가 잡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흥미로운 것은 영웅릉의 정상 부분에 있는 무명용사 동상이다. 이 동상의 얼굴은 초대 대통령

인 샘 누조마의 젊은 시절 얼굴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래서 이 동상은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것 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신화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담긴 동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만수대 해외개발사는 독립 기념관과 영웅릉 이외에도 대통령 궁과 준공은 되었으나 개관을 하지 않고 있는 군사박물관 등을 건설하였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건물들을 건설하였는데 그 중에는 개인 회사건물도 있다. 만수대 해외개발사의 독점수주는 나미비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문제삼고 나온 것은 지역 건축계이다. 북한과 나미비아 정부의 배일에 싸인 관계에 대한 의혹들을 지역 언론인 존 그로블러(John Grobler)를 시작으로 나미비아 언론들이 기사화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쓴 기사를 보자.

나미비아와 북한과의 수상한 거래 2013.4.26 (North Korea's deals in Namibia a mystery 26 Apr 2013)

북한이 왜 경합을 거치지 않고 모든 국가 기념비 건축사업을 계약하는지는 미스터리이다. 그들의 일하는 능력은 매우 형편없다. 영웅릉(Heroes' Acre)은 2002년에 523만 달러를 들여 완성되었지만, 벌써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실한 단서들로 이야기하자면 우선 영웅릉에 세워진 8미터 높이의 무명용사 동상을 거론할 수 있다.

무명용사라 이름붙인 이 동상은 나미비아의 초기 대통령 샘 누조마를 재현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누조마도 고군분투하는 군대의 모습을 신격화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누조마와 김정은 둘다 실제 전쟁을 본적도 많이 없다.

나미비아와 북한 간의 공식적 관계는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며 명백한 것은 북한이 나미비아의 낡아 빠진 세력과 특별한 관계를 즐긴다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사업은 누조마가 취미처럼 즐기는 일들이고 만수대가가 그 일들을 맡아 하는 것이다. 메일과 가디언(Mail & Guardian)의 문서에 따르면, 에툰다(Etunda) 농장에 있는 누조마의 개인 별장을 만수대 해외개발사가 재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현재 나미비아 국방부 건물의 수주를 맡아 공사 중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사는 나미비아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나미비아에서는 건축물 수주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sup>2)</sup>

북한이 나미비아에서 독점적인 건축수주로 인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면 짐바브웨에서 북한은 짐바브웨 현대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름다운 현대식 고층 건물들과 식민시절에 세워진 빅토리아양식의 건축물들도 쉽게 볼 수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는 세계 최장기 집권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살고 있다. 그는 김일성이 80년대 아프리카외교를 강화하던 시기 친분을 쌓기 시작하여 서로를 동지이자 형제로 부르던 사이였다. 또한 무가베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경도되어 짐바브웨 주요 관공서에 주체사상 영문전집을 배치하기까지 하였다.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지 일 년째 되던 해인 1981년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사는 국립현충시설인 영웅릉을 하라레 외곽에 건설하였다. 영웅릉은 짐바브웨의 식민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다.

1888년 세실 로즈(Cecil J. Rhodes)의 영국 남부아프리카회사(British South Africa Company)로부터 시작된 식민침략은 짐바브웨를 남로디지아(Southern Rhodesia)라는 이름의 영국 식민지로 만들었고 결국 1923년 정식 영국령

2) 나미비아 외교부는 2016년 6월 30일,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및 만수대 해외프로젝트(MOP: Mansudae Overseas Project)와 관련된 사업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정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네툼보 난디-은다이트와(Netumbo Nandi-Ndaitwah) 나미비아 외교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등 북한의 두 업체와의 사업중단 결정 사실을 북한측에 전달했으며, 같은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한 끝까지 이를 따르겠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우호 관계 또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 편입하게 된다. 1960년대 여러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영국의 식민정책도 바뀌어 주요시민인 흑인들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조건으로 독립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는데, 1964년 이안 스미스가 이끄는 로디지아 전선이 영국 정부의 다수자 지배원칙(No Independence Before Majority African Rule)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까지의 백인 소수 지배형태인 마이너리티 룰을 유지하면서 일방적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의 제재를 불리으면서 동시에 무가베 현 대통령(ZANU)과 전 부통령인 은코모(ZAPU)가 이끄는 민족주의 세력의 무장투쟁인 로디지안 부시 워(Rhodesian Bush War, 2차 해방전쟁Second Chimurenga, 1966~1979)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이 건설한 영웅릉은 바로 이를 기념하는 것으로, 짐바브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현충시설이다.

짐바브웨의 영웅릉은 수도 하라레를 벗어나 불라와요로 가는 길에서 7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나미비아 영웅릉과 매우 비슷한 지리적 위치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영웅릉 모두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황무지와 벌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상당히 멀다. 영웅릉은 북한의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의 조각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계단식 공원묘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웅장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북한 만수대창작에서 파견 나온 7명의 예술가들과 10여 명의 짐바브웨 예술가들이 함께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영웅릉의 공사에는 250여 명의 지역노동자들이 동원됐고 하라레에서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무토코(Mutoko)에서 온 검은 화강석이 주요 석재로 쓰였다. 이 영웅릉은 천연자원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영웅릉 내부 공원의 조경이나 계단식 무덤에서는 북한의 특징적인 수직, 수평적인 구도 등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림 3〉 영웅릉, 짐바브웨 하라레, 1982년 완공

다만 공원 정면에 세워진 동상의 경우는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 전면의 3인상과 상당히 흡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3인상 조각의 구도는 북한이 에디오피아에 1984년도에 건립한 티그라친(Tigrachin)기념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티그라친 기념비의 경우는 실제로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상당히 흡사한 디자인의 3인상 조각구도와 그 뒤로 높이 솟은 기념비를 볼 수 있다. 티그라친 기념비는 170m 높이의 평양주체탑과 비교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르네상스와 비슷한 50m 높이로 이것은 에디오피아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의 높이와 비슷하다.

2010년 북한은 짐바브웨 제2수도인 블라와요에 전직 부통령인 조슈아 은코모의 동상을 건립하였는데 이 동상은 개막식이 있기 전날 시민들에 의해 철거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수모는 무가베 정권이 블라와요 지역에서 자행한 학살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구쿠라훈

디(Gukurahundi)<sup>3)</sup>라 불리는 이 학살 사건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무가베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부통령 조슈아 은코모의 지지기반인 마테벨레랜드 지역의 은데벨레(Ndebele) 사람들 25,000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북한은 무가베의 요청에 의해 1983년 군사훈련교관과 고문단 130명을 파견하여 무가베의 친위대이자 학살의 주역인 제5여단의 군사 훈련을 담당하였다. 하라레에서 만난 전직 육군장군인 판다파 루타오(Fandafa Rutao)는 북한교관에게 훈련받은 경험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필 자: 북한 군대에서 받은 훈련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이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판다파: 일반적인 하루일과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약 10킬로미터를 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은 날마다 다릅니다. 일단 군대에서 하는 개인기 훈련은 일반 시민을 군인으로 만드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6~7시부터 9시까지 안전교육을 받고 30분간 휴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tea)를 조금 마실 수 있는데 차는 뛰면서 아주 빨리 마셔야 합니다. 어디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뛰면서 더러운 수저를 이용해 마십니다. 그게 군사훈련입니다. 군대는 훈련입니다. 개개인에게 그런 훈련이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그 후에는 덩불에 들어가 개인 전술을 익힙니다. 엷드린 자세로 팔목을 이용해 기본 400미터를 기어갑니다. 옆으로도 가고 몸을 굴리기도 하고 그걸 점심식사 전까지 합니다. 점심식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30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식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본 AK47자동 소총 훈련을 오후 4, 5시 정도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총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받는 일반적인 훈련입니다. 만약 권총 훈련을 받게 되면 잠시 쉬는 시간이 주

3) 구쿠라훈디는 쇼나말로 겨를 씻어 내리는 초봄의 비라는 뜻으로 무가베정권이 저지른 학살의 작전명이다.

어지고 그 후에 정치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군대와는 다르게 정치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독립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 후에는 다같이 도덕이라 불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데 그게 정치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자정 12시에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수면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북한군대에서 병사가 받는 훈련입니다.

나는 은코모의 동상을 실제로 보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뒷 마당에서 천막으로 둘러싸인 동상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은코모의 동상은 예상과는 달리 사진에서 보던 은코모와 흡사한 인상에 고급스런 황동색 브론즈 특유의 색감을 가지고 있었다. 현지의 비판적인 기사에서는 이 동상이 몸의 비례에 비해 얼굴이 작다거나 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동상이 건립된 당시 시민들이 지상에서 동상을 올려다 보면서 생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본 은코모 동상은 만수대 조각사 조각가들이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 제작한 동상들처럼 사실적인 묘사력을 보여주며 만수대 조각사 조각가들의 뛰어난 기술수준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코모의 동상이 건립되던 2010년 짐바브웨 뉴스에 따르면, 은코모의 유가족들과 지역민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 은코모의 동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여 동상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코모 동상 철거사건은 불라와요 지역을 넘어 해외언론에 까지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은코모 동상의 논란에 대해 은코모 부통령의 아들이자 정치인인 마이클 시방질리웨 은코모는 아래 인터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이 만든 기념비에 대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필 자: 북한이 만든 은코모동상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당시 반응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이클: 처음 북한인들이 은코모 동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짐바브웨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북한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고자 한다면 짐바브웨 조각가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야 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국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사람들이 그 동상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욕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북한사람들에게 동상을 만들게 한일은 우리가 가진 상처에 모욕을 더한 셈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동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는 동상을 원합니다. 제 아버지 조슈아 은코모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동상은 의미있는 동지들과 그들의 바램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은코모 동상 해프닝은 사실 무가베와 김일성의 우정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김일성은 1970~80년대에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군사원조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력이 어떻게 쓰일지는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94년 북한에서 탈북한 전 아프리카 담당 외교관 고영환씨는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 해주었다.

고영환: 1986년 말 아프리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을 당시 말리는 북한에서 지원받은 탱크대대를 이용해 부르키나파소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이에 대항하는 부르키나파소군 역시 북한에서 지원받은 대전차 로켓으로 저항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말리 대통령의 아들인 탱크 대대장이 북한제 대전차 로켓에

맞아 전사하니까 김일성은 말리 대통령의 원성을 사게 되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말리로 특사를 보내 말리 대통령을 정중히 위로함으로써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도 드러나지만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교관들이 교육시킨 짐바브웨의 제5여단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예상하지 못했었거나 그런 임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무가베의 제5여단 부대의 군사 훈련을 전담했으므로 이 학살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블라와요 지역에서 학살 주범인 무가베만큼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처럼 양국 지도자들의 오래된 유대관계가 만수대 해외개발사의 건축수주로 연결된 경우와는 다르게 세네갈은 북한의 수준 높은 대형동상 제작 기술만을 필요로 한 경우이다.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그리고 아프리카에 진출한 만수대 해외개발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49m 높이의 이 브론즈 기념비는 세네갈의 3대 대통령이었던 압둘라이 와드(Abdoulaye Wade, 재임 2000~2012)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북한은 과거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인 레오폴드 쟁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재임 1960~1980)를 평양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고, 쟁고르 대통령도 유엔에서 한차례 북한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지만, 세네갈이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처럼 북한과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sup>4)</sup>

4) 세네갈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2년 10월 19일, 북한과는 1972년 9월 12일에 각각 수교하였으며 남북한의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1975년 4월에는 한국·세네갈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1979년 4월 대통령 쟁고르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1982년 8월 대통령 전두환이 세네갈을 방문하여 문화협정·경제기술협력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1998년 2월 북한은 경제사정으로



〈그림 4〉 아프리카 르네상스,  
세네갈 다카르, 2010년 완공

지식인으로도 잘 알려진 레오폴드 대통령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선택했으며 정치적으로 아프리카의 모범사례라고 불릴 만한 민주주의를 이끈 인물로 김일성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김일성의 사회주의 노선을 배우고자 했던 다른 아프리카 지도자들과는 달리 김일성과 딱히 친해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김정일시대에는 이미 북한이 김일성시대 같은 원조외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

던 만큼 압둘라이 와드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특별한 관계라고도 할 수 없었다.

만수대 해외개발사와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 공사를 협업한 아테파(Atepa)그룹의 피에르 아테파(Pierre Goudiaby Atepa)씨는 인터뷰에서 제작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인하여 주세네갈 상주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아프리카 거점공관인 주 기네 대사관에서 겸임토록 하였다. 세네갈의 경우에는 주일본 대사관이 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필 자: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의 개발과정과 디자인의 변화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테파: 그 동상 디자인의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전 대통령 와드로부터 나온 겁니다. 저는 당시 그의 담당 건축가이자 특별자문이었는데, 하루는 그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자네는 30년 전 내가 쓴 책을 기억하는가? 한 아프리카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어떤 산을 올라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있었지. 나를 위해 그 장면을 디자인 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북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스케치 중에서 좋은 디자인을 하나 고른 후, 어떻게 세네갈에 이 동상을 건축할 것인지부터 브론즈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뜰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부분 사진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들은 각각 한 1.5에서 2미터 정도인데 이 기념상은 무게가 200톤 정도입니다. 남성동상이 100톤, 여성이 75톤, 아이는 25톤 정도입니다.

필 자: 당신은 공학부터 아름다운 대형 건물들도 많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아프리카인들 대신 북한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요?

아테파: 저는 지금 미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게 아니라 기술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브론즈 조각은 오직 북한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이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아프리카 조각가들과도 일을 합니다. 제 정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에 있는 모든 조각품들은 아프리카 조각가들이 만든 겁니다. 길거리에서도 아프리카인들이 만든 조각품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조각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아프리카인들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게 북한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와드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가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입장수익의 35퍼센트를 가져가



〈그림 5〉 아프리카 르네상스 부분 사진, 아테파 그룹 제공, 2009년 촬영

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와드는 2012년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 조건을 철회하였다.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가 큰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세네갈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데 북한은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 제작비로 총 1,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제작비 규모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 공사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반대시위가 수도 다카르에서 일어났다. 시위대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의 공사예산 1,200만 달러는 당장 세네갈의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과 다카르의 심각한 하수도 문제의 공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첫째 이유였다. 또 다른 이유는 종교계와의 마

찰이었다. 전 국민의 90%가 무슬림인 국가에서 무슬림 지도자인 이맘들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기념비가 건설된 2010년 5월 여러 이맘들은 공개적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를 비판하였다. 종교계에서 제기한 문제는 대형 기념비가 그 자체로 우상을 상징하므로 무슬림의 교리와 대치된다는 것이며, 또한 동상의 여성상이 가슴을 반 이상 노출시키고 있는 형상이어서 여성의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무슬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위대와 반대세력은 와드 정권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사를 세네갈에서 기념비를 만든 건설업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언론에서는 기념비를 비판적으로 괴물 같다거나 흉물스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르네상스는 낮이나 밤이나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도발적인 여성동상의 모습은 클라이언트인 세네갈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한 제한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는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사를 전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에서는 동상을 둘러싼 세네갈 내부의 갈등과 함께 와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북한으로 흘러간 외화가 김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추측 등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나라의 사례들 외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는 북한의 만수대창작사가 만든 기념비들이 많다. 이들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북한과 아프리카의 정치적 관계, 불투명한 입찰 과정 그리고 북한 외화벌이가 비자금 조성으로 연결된다는 의혹 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작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미학에 대한 이해와 비평은 부족하다. 나는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정치적 부산물로 잊혀져 온 만수대 해외개발사의 창작품들을 정치적 아이러니를 내재한 비판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창작품들은 아프리카를 통해 북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소통창구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권현익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작과비평사, 2013.
- 김명주. 『백인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말하지 말라』.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2.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효형출판, 2011.
- 제인 포털 저 · 권오열 역. 『통제하의 북한예술』. 길산, 2005.
- 정해중. 『터치 아프리카』. 생각의나무, 2005.
- 필립 뤼제아. 『이제는 평양건축』. 담디, 2012.
-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편. 『아프리카의 역사와 정치 경제』. 다해, 2007.
- 하타야마 야스유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합니다! - 북한미술, 김정일 시대의 결산과 김정은 시대의 전망.” 〈ART IN CULTURE〉 2012년 1월호.
- Meghan Kirkwood, “Postcolonial Architecture Through North Korean Modes: NamibianCommissions of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Masters Degree Thesis, University of Kansas, 2011.
- Amy Niang, “African Renaissance, reloaded: The old man, the behemoth and the impossible legacy.” Pampazuka News, 2010.

### 최원준(Che, Onejoon)

비주얼 아티스트, 영화감독. 사라져가는 미아리 집창촌을 사진으로 기록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당시 설치된 벙커와 이라크전 이후 버려진 미군캠프 등을 사진과 단편영화로 기록해왔다. 2011년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에 건설한 건축물과 기념비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8개국 (마다가스카르, 에디오피아, 가봉, 콩고, 세네갈,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공) 13개 도시에서 촬영과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2012년 팔레드 도쿄 모듈, 2014년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와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2015년 뉴 뮤지엄 트리엔날레 등 국내외의 약 50여회의 전시와 스크리닝에 참여했으며,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 2017-2018 한국입주작가이기도 하다.